

## [ 시티 &amp; 피처 ]

# 광주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

1.39%, 서울 제외 5개 도시 중 꼴찌

재활시설도 7대 도시 중 가장 적어

광주시의 장애인 민간기업 고용비율이 5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25일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연구용역' 결과 광주시의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인구 비율이 1.39%로, 서울(1.35%)을 제외한 5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도시별로는 인천이 1.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산(1.74%), 대전(1.63%), 대구(1.5%) 순이었다.

실제 광주시 관내 장애인 취업 가능 인구 3만472명 가운데 4천139명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취업, 취업률이 14.4%에 그치고 있다. 또 전체 취업 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1만4천341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고용 현황에서는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들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들은 취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3만472명 장애인 가운데 장애 5급(56.7%)과 6급(22.6%)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으나, 장애 1급(19.9%)은 2급(16.6%), 3급(19.4%)의 취업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애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 사업을 수탁받은 민간위탁기관에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적용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체계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2012년 개관을 목표로 '장애인종합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

기운데 가운데 낮았다. 또 광주시는 의료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없었다.

고 있다. 3천㎡ 부지에 60억정도 예산이 투입될 장애인 종합직업훈련센터는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이 입주하는 등 장애인 산업단지 형성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를 토대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을 세워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심 활성화 방안 찾기

광주시 동구청(청장 유태명)은 25일 동구청 벤처빌딩에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심 활성화 전략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성구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과 안명숙 광주대 교수가 도심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워커리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 서구에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습도서관이 문을 연다.

25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착공된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이 26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위치한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연 면적 1천323㎡)은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개관

###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매년 기획 전시회

이 생태학습도서관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시청각실, 기획전시실, 모자열람실 및 디지털자료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서구는 지난 14일 국립생물자원관과

상호협정을 맺었으며 매년 서너 차례 기획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또 도서관 내부는 곤충 모양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도서관 주변은 생태연못과 산책로, 야생화 단지

를 조성해 생태학습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연 서구청장은 "생태학습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놀이 공간으로써 죄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공동 추진하는 '빛고을 바이크 사업단' 프로젝트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빛고을 바이크 사업단에는 광주

시와 광주YMCA, 광주도시철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지부, 공인회계사

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현 소장과 번개배달로 널리 알려진 김대중씨가 함께 된다.

수강생은 26일까지 '북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sbdc.or.kr)를 통해 2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전화는 062-525-2724.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 '사회적 일자리' 1,058개 창출

노동부 공모 전국 세번째 많은 인원 배정... 3년 간 312억원 지원

광주시가 노동부 주관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서 1천58명을 배정받아 향후 3년간 국비 312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1인당 월 78만8천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8.5%를 지원하고, 참여단체에는 인건비의 20%를 수익모델 개발·연구비와 교육훈련비로 제공하게 된다.

광주 지역 선정기관은 참여자치정보센터와 (재)지역문화교류회 남재단, 광주YWCA, (사)해피웨이 등 40곳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발굴지원단을 운영해온 광주시는 다음 달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백화점'을 열고 참여단체의 인원 선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

## '빛고을 바이크 사업단' 내달부터 50명 채용

### 국비 5억여원 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광주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공동 추진하는 '빛고을 바이크 사업단' 프로젝트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단은 다음달부터 50명의 운용인력을 채용해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자전거 무료 수리 서비스를 위한 이동 수리반 운영, 자전거 정비 학교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택배, 재활용 자전거 온라인 판매 등의 사

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 기획과 인력 채용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광주YMCA가 맡게 되며 광주시 등 참여기관은 행정지원과 공동 사업진행, 네트워크 구축 협력, 인적자원,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바이크 사업단에 대한 노동부 지원은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이뤄지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지원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시험기관 국제공인 받아

전자부품연구원(KETI) 광주본부가 자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환경 및 신뢰성(온·습도)분야의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OLAS 인정은 해당분야 시험결과가 전 세계에서 공식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좋은 보상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문점

(062) 227-9940

출판점

(062) 227-9970

**서구 주민인천**

**국제보청기**

1,000만원까지 가능!

**담보대출 안내**

대출금액	금리	기간	대출금액	금리	기간
100만원	10.9%	12개월	1000만원	10.9%	12개월
200만원	10.9%	12개월	2000만원	10.9%	12개월
300만원	10.9%	12개월	3000만원	10.9%	12개월

**사업자 대출 안내**

대출금액	금리	기간	대출금액	금리	기간
100만원	10.9%	12개월	1000만원	10.9%	12개월
200만원	10.9%	12개월	2000만원	10.9%	12개월
300만원	10.9%	12개월	3000만원	10.9%	12개월

(주)리첸  
광주작영전시장 OPEN